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 †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Expressiveness, Marital 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Style of Preschool Mothers

김혜순*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Kim, Hye So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expressiveness, marital 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styles of preschool mother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58 mothers whose children, 4-6 years of age, are enrolled in 5 kindergartens in Gyoonsang-do.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reporting their emotional expressiveness, marital 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styles.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PSS 17.0.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expressiveness, marital 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styles of the mothers, respectively. Second, mothers' active coping style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ree factors: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communication and conflict solving, and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Third, mothers' passive coping style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ree factors: the expectations of their spouse's role, intimacy, and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mothers to express their positive or negative emotions actively and improve their marital satisfaction to cope with stress effectively.

Keywords: mother, emotional expressiveness, marital satisfaction, coping style

I. 서론

오늘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구조와 가족가치관 그리고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고,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게 한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게 된다.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와 취업모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어머니가 겪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의미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환경의 영향과 개인의 신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개인의 자기에 대한 지각과 대인관계 능력, 행동유형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2011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Corresponding author: Kim, Hye Soon

Tel: 010-2274-5587

Email: heidi-77@hanmail.net

현대사회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임주희, 최연실, 2006).

스트레스는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전 생애에 걸쳐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일상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볼 때 이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성공적 적응 혹은 부적응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변인이나 대처방식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자신이 맡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정서를 경험한다(김현주, 김광웅, 2007)고 보고된 바 있다. 반면 한 개인이 나타내는 부적응의 원인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중심의 대처와 상황으로 인해 유발된 정서반응을 조절하려는 정서중심의 대처로 구분된다(Lazarus & Folkman, 1984). 문제중심적 대처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에 대처하려는 노력이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유발됨(Lazarus & Folkman, 1984)을 고려할 때, 유아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설명할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의 개인특성, 어머니를 둘러싼 일차적 환경변수인 부부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머니 자신의 개인특성 중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련해서는 정서표현을 들 수 있다.

정서표현(emotion expression)이란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alovey *et al.*, 2004). 과거에는 직접적인 정서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으나 점차 정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에서 정서표현이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안녕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김혜원, 홍미애, 2007; 오성희, 2010; Buck, 1989; Rini, 2001; Stanton *et al.*, 1994). 즉, 자신이 느끼는 정서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자신의 내적·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노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식이 서투르며, 더 많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반면, 긍정적인 정서 경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onigan *et al.*, 1994).

정서 경험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명료하므로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해야할지가 명료한 사람이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등이 적을 것이고 정서에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해야할지도 분명할 것이다. 그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정서로 인한 심리적 질환을 겪을 일도 적을 것이다(이승미, 오경자, 2006; 이주일 외, 1997). 이렇듯 정서적 사건에 대한 강한 정서 경험과 적절한 정서 표현은 현대인들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적 대인관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가족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정서적 경험, 정서 표현성, 사회적 기술, 또래 관계 등 전반적 생활에 영향을 준다(Halberstadt *et al.*, 1995). 그리고 가족환경은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결과를 학습하는 일차적인 환경을 제공한다(Dunn *et al.*, 1994; Saarni, 1989).

좀 더 살펴보면, 부모의 정서표현은 자녀에게 비언어적 단서를 민감하고 은밀하게 제공하여 유아가 정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서 관련 지식습득에도 영향을 미친다(Dunsmore & Karn, 2001). 그리고 관련연구(서혜린, 이영, 2008; 송하나, 최경숙, 2010; Cole & Zahn-Waxler, 2003)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를 자주 표현하는 부모의 아이는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부모의 자녀는 공포와 분노를 강하게 표현하는 아이가 된다.

특히 모의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감정조절(백미애, 2001) 정서조절전략(서혜린, 이영, 2008), 정서표현 능력(송하나, 최경숙, 2010), 자기조절능력(임미옥, 2005),

정서능력(차윤희, 2004), 또래관계 유능성(이지현, 2006)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유아를 주로 돌보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서인식 및 이해, 정서조절 등 정서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가족 환경적인 요인에서 부부관계의 특성 중 결혼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이 있음이 관련 연구들에서 시사되고 있다. 결혼만족도란 기존에는 단순히 부부관계에서의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생각을 반영해왔다(Sabatelli, 1984). 그러나 이후 가족관계적 특성을 감안한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들(정현숙, 2001; 정현숙, 유계숙, 2001; Fowler & Applegate, 1995)에 의해 부부관계에서의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왔다.

국내연구들 중 박성옥, 김정훈(199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이나 양육에 대해 남편의 이해와 지지가 있을 경우 스트레스가 낮아져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양육행동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정은, 이영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변인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Johnson *et al.*(2005)에 따르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요인이 개입한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서로 협력하는 원만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김아신에서 재인용, 2009)

한편, 자녀양육과 교육이 대체로 부인의 역할로 규정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남편들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인의 경우, 남편의 감정적인 지지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남편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부인은 역할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부모로서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결혼에 만족하고 남편에게 감정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인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우울증이 덜하다고 한다. 반면 남편이 부인을 비판하거나 비난할수록 부인은 어린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게 된다. 실제로 남편에게 따뜻함과 애정을 덜 느끼는 부인일수록 자녀를 꾸짖고 야단치는 경향이 있다(양경

화, 2000)고 보고된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어머니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떨어질 때 자녀를 위한 구체적 양육행동의 질은 약화된다(김의향, 2010; 박새밀, 2004; 윤경화, 1992).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애정표현의 정도와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유아기 자녀의 정서발달과 관련되어 있었다(안명은, 2007).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한 후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정도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Amato, 1991; Belsky & Pensky, 1990).

이와 같은 결혼만족도 관련연구들에 의하면, 종래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나 부부효율성, 상호작용 접근으로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부의 결혼만족수준 그 자체보다는 결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인의 정서적 건강성 수준에 좀 더 높은 관심을 두는 연구 경향을 볼 수 있다(황종귀, 2009; Blackburn *et al.*, 2004; Couillard, 1990).

앞에서 살펴 본 모든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가 시사되고(Lonigan *et al.*, 1994),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가 시사되며(김아신, 2009; 이정은, 이영호, 2000),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도 시사된다(김아신, 2009). 그러나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매우 희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어머니들의 심리적 특성변인으로서 결혼만족도와 정서표현성이 자신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특히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머니들이 보다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가족과 사회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158)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세 이하	21(13.3)
	31세-35세	66(41.8)
	36세이상	71(44.9)
학력	고졸	60(38.0)
	전문대졸	71(44.9)
	대졸이상	27(17.1)
취업 여부	취업	73(46.2)
	전업주부	85(53.8)
가정 소득	200만원 이하	24(15.2)
	201-300만원 이하	64(40.5)
	301-400만원 이하	43(27.2)
	401만원 이상	27(17.1)

본 연구대상은 G시 5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어머니 158명이다.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령은 31세 이상이 대부분으로 31세~35세가 41.8%, 36세 이상이 45%였다. 그리고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38%, 전문대졸이 45%, 대졸 이상이 17%로 나타나 전문대졸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모가 46.2%, 전업주부가 53.8%로 전업주부가 약간 더 많았다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은 201~300만원 이하가 40.5%로 가장 많았고, 301~400만원 이하 27.2%, 401만원 이상 17.1%, 그리고 200만원 이하가 15.2%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였다.

1) 정서표현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alberstadt *et al.*(1995)이 제작한 가족안에서의 자기표현 설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임미옥(2005)이 번역, 수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측정하는 23문항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을 측정하는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원래 긍정적-지배적, 긍정적-복종적, 부정적-지배적, 부정적-복종적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연구들에서 긍정적, 부정적 2가지 하위 영역 형태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져 본 연구에서도 2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질문지를 통한 어머니들의 자기보고식 형태 도구로서 반응별 채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 의해 평정된다.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성 척도의 내용 문항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긍정적 정서표현성 Cronbach $\alpha=.77$, 부정적 정서표현성 Cronbach $\alpha=.58$ 로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만족하게 지각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실정을 고려하여 개발한 정현숙(2001)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 영역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부부간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은 부부간에 의사소통의 빈도가 많으며, 자유롭게 서로에게 감정과 의견을 나타내는 특성을 의미하며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방 존중 및 배려'영역은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배려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6문항이다. '부부간 친밀감'은 부부간에 친밀함을 느끼고 사랑하고 사랑받겠다고 느끼며, 서로 돌보아주고 돌보아진다는 감정과 성행위를 포함하며 총 4문항이다. '부부간 역할기대'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을 의미하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전체 결혼만족도는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Likert식으로 평가된다.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으로 점수화하였다. 이 척도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부부간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Cronbach $\alpha = .87$, 상대방 존중 및 배려 Cronbach $\alpha = .90$, 친밀감 Cronbach $\alpha = .83$, 부부간 역할기대 Cronbach $\alpha = .92$ 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검사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 of Stress Coping Checklist)는 김정희, 이장호(1985)가 요인분석하여 개발한 62문항 중에서, 박주영(1995)이 하위 차원별로 문항을 선별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적극적 대처 12문항, 소극적 대처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점 Likert식(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 조금 사용한다, 3= 보통으로 사용한다, 4= 매우 많이 사용한다)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4가지 하위영역별 점수는 최저 6점에서 24점으로 채점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4가지 하위영역 중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적극적 대처방식이 되며, 정서완화적 대처방식과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은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구성된다.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란 문제 행동을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환경 관련 요인에 직면하여 그 원인 자체를 변화시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하며 총 6문항이다.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려는 행동을 말하며 6문항이다.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은 다양한 스트레스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적인 위협을 조절,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6문항이며,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행동을 말하며 총 6문항이다. 본 척도 하위영역 각각의 신뢰도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Cronbach $\alpha = .83$,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 Cronbach $\alpha = .58$,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Cronbach $\alpha = .82$, 소망적 대처방식 Cronbach $\alpha = .79$ 로 각각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최초 본 연구를 위하여 배포한 설문지는 210부였으나 무응답이나 부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은 158

부가 되었다. 설문조사는 2010년 3~4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인 결혼만족도와 정서표현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자기보고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WIN 17.0 통계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주요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이 실시되었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변인들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적극적 대처방식은 대부분의 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25 \sim r = .47$)을 보였으나 소극적 대처방식은 정서표현($r = .18, p < .05$), 긍정적 정서표현($r = .27, p < .01$), 결혼만족도($r = .19, p < .05$),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r = .18, p < .05$), 상대방 존중 및 배려($r = .21, p < .01$), 부부역할기대($r = .28, p < .001$)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긍정적 정서표현성 및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긍정적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이 많을수록, 상대방 존중 및 배려, 부부역할기대가 많을수록,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이 많을수록, 상대방 존중 및 배려, 부부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된다.

(표 2)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평균과 표준편차

(N=158)

	1	2	3	4	5	6	7	8	9	10
1. 정서표현	1									
2. 긍정적 정서표현	.61***	1								
3. 부정적 정서표현	.67***	-.18*	1							
4. 결혼만족도	.34***	.5***	-.13	1						
5.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33***	.6***0	-.15	.90***	1					
6. 상대방 존중 및 배려	.28***	.50***	-.12	.91***	.77***	1				
7. 친밀감	.2**	.45***	-.08	.86***	.71***	.66***	1			
8. 부부역할 기대	.32***	.55***	-.13	.87***	.69***	.80***	.65***	1		
9. 적극적대처	.47***	.28***	.32***	.31***	.31***	.27**	.25**	.27**	1	
10. 소극적대처	.18*	.27***	.03	.19*	.18*	.21**	.02	.28***	.07	1
평균	3.33	3.91	2.74	3.68	1	3.61	3.67	3	2.96	2.91
표준편차	.37	.56	.60	.71		.80	.88	.68	.59	.56

* $p < .05$, ** $p < .01$, *** $p < .001$

2. 어머니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정서표현성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계수<표 2 참조> 및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VIF)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간 상관계수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단계적 회귀분석 중 부정적 정서표현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1단계의 경우 Tolerance는 1.0, VIF는 1.0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이 추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Tolerance는 각각 .99, VIF는 각각 1.02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추가투입된 3단계에서는 Tolerance는 .64에서 .96의 분포를 보였고, VIF는 1.04에서 1.57로 나타나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모두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 Watson 계수인 D-W는 1.79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상관 없이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정서표현성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beta = .32,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부정적 정서표현성($\beta = .37, p < .001$),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beta = .36,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중 부정적 정서표현($\beta = .39, p < .001$), 결혼만족도 변인 중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beta = .24, p < .05$) 그리고 정서표현성 중 긍정적 정서표현($\beta = .21, p < .01$) 순으로 어머니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변인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변량 중 총 24%를 설명하였다. 부정적 정서표현변수만 투입되었을 때 전체 설명력은 10%였으나 2단계에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이 추가 투입되어 설명력이 13%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추가되면서 3%가 추가되어 총 설명력이 24%로 증가되었다.

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정서표현성이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계수 및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VIF)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간 상관관계수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표 2 참조> 단계적 회귀분석 중 부부간 역할기대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1단계의 경우 Tolerance는 1.0, VIF는 1.0으로 나타났다. 부부감 역할기대 및 친밀감이 추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Tolerance는 각각 .58, VIF는 각각 1.71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추가투입된 3단계에서는 Tolerance는 .49에서 .68의 분포를 보였고, VIF는 1.47에서 2.01로 나타나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모두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 Watson 계수인 D-W는 1.68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상관 없이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정서표현성이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표 4>에서 보듯이,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부부간 역할기대($\beta=.28,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부부간 역할기대($\beta=.46, p<.001$), 친밀감($\beta=-.27,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부부간 역할기대($\beta=.37, p<.01$)와 친밀감($\beta=-.30, p<.01$) 그리고 긍정적 정서표현($\beta=.20, p<.05$) 순으로 어머니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변인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총 변량의 15%를 설명하였다. 즉 부부간 역할기대만 투입되었을 때 전체 설명력은 8%였으나 2단계에서 친밀감이 추가 투입되어 설명력이 4%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추가되면서 3%가 증가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정서표현성과

<표 3>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N=158)

	독립변인	B	β	R^2	ΔR^2	F
1단계	부정적 정서표현성	.31	.32***	.10	.10	17.26***
	부정적 정서표현성	.36	.37***	.23	.13	22.67***
2단계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25	.36***	.24	.03	17.48***
	부정적 정서표현성	.38	.39***	.24	.03	17.48***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17	.24**	.24	.03	17.48***
3단계	긍정적 정서표현성	.22	.2*	.24	.03	17.48***

* $p<.05$, ** $p<.01$, *** $p<.001$

<표 4> 정서표현과 결혼만족도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N=158)

	독립변인	B	β	R^2	ΔR^2	F
1단계	부부간 역할기대	.23	.28***	.08	.08	13.34***
2단계	부부간 역할기대	.38	.46***	.12	.04	10.74***
	친밀감	-.17	-.27**	.12	.04	10.74***
3단계	부부간 역할기대	.30	.37**	.15	.03	9.01***
	친밀감	-.19	-.30**	.15	.03	9.01***
	긍정적 정서표현	.20	.20*	.15	.03	9.01***

* $p<.05$, ** $p<.01$, ***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이다. 연구문제들을 중심으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정서이든지, 부정적인 정서이든지,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용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지에 따라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 주어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데 있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정윤선(1993)이 일찍이 수행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행복감 및 불행감의 관계연구에서도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인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은 높고, 불행감은 낮은 반면에 '감정완화 대처와 소망적사고'인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본 결과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조민영, 2004)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가 긍정적 정서 및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가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에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적극적 대처는 긍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이 있고,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Lonigan *et al.*, 1994)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원만한 대인관계 및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정서를 경험한다(김현주, 김광웅, 2007; Rini, 2001)고 보고된다. 또한 본 결과는 부부의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위기분 척도를 사용하여 상위기분과 문제해결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김아신(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이는 정서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상위기분수준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과 문제해결행동이 긍정적일 때가 부정적일 때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Pitcher와 Meikle(1980)에 의하면, 자기표현적인 사람들은 문제해결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자기표현적인 사람들이 환경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적극적인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잘 견디어 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관련연구(Pitcher & Meikle, 1980)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어머니가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적극적 스트레스 사용은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게 될 것이며, 나아가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어머니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중 부정적 정서표현성, 결혼만족도 중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정서표현성 중 긍정적 정서표현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부정적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부부간에 의사소통의 빈도가 많으며 자유롭게 서로에게 감정과 의견을 많이 나타낼수록, 그리고 긍정적 정서표현이 있을수록 어머니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겠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가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적 정서표현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두려워하며 또한 이러한 사용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서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억제하기보다 적절하게 표현함을 익히는 것은 본 결과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후 적극적 대처방식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서일지라도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태도가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적극적 스트레스대처 방식에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이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결과는 이정은, 이영호(2000)의 연구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 위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아울러 부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심리적 건강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어머니들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성을 보고한 연구들(이주일 외, 1997; Lonigan *et al.*, 1994)을 광범위하게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결혼만족도 중 부부간 역할기대와 친밀감 그리고 정서표현성 중 긍정적 정서표현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서로 충실하여 상호간의 기대에 부응할수록, 부부간에 친밀함을 느끼고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서로 돌보아주고 돌보아진다는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긍정적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특히 부부간 역할기대와 친밀감 요인은 소극적 대처에 해당하는 소망적 대처와 정서 완화적 대처로 각각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역할기대와 친밀감 요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타나는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소극적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소극적 대처방식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이룬다는 연구결과들(김정희, 이장호, 1985; 조민영, 2004)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들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어머니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표현성이 보다 큰 설명력을 갖는 반면,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결혼만족도 요인들이 보다 큰 설명력을 보이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좀 더 계발될 필요가 있으며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결혼만족도가 증가될 필요가 있다.

전술한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는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우울 및 불안,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 특성 등은 자녀들의 적응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다(김아신, 2009; 오지현, 조유진, 2009; Lonigan *et al.*, 1994). 이에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을 지니는 것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어 건강한 정서를 가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건강한 정서 및 가정내 정서표

현이 잘 이루어지는 정서 환경은 가족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유아기 자녀의 정서인식을 포함한 정서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도에 거주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표집으로 이루어졌고, 질문지 연구로서는 충분한 표본 수라고 볼 수 없어 본 연구결과와의 일반화에 제한점을 갖는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대표성 있는 표집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질문지 조사연구로서 어머니들의 심리적 특성만을 조사하였다. 이에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대처양식과 정서표현성 및 결혼만족도 변인간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양방향적 분석이나 변수들 간의 조절효과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들의 일반적 배경에 의해서 그리고 배우자의 지지나 주변 영향력 있는 가족, 친지에 의한 지원에 의해서도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이러한 특성들에 의한 차이도 좀 더 정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특성만으로 연구 설계가 이루어졌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모-자녀 변인들이 함께 구성되어 이러한 어머니 특성들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함께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고 믿는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영향력은 주로 자녀 변인들을 통해 규명되어왔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이러한 주요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들 중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일차적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부부간 역할기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힘으로써 이들 변수들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성이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흔히 매개변수로서 관심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어머니 자신의 정서표현성과 결혼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낸 점은 이들 변수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을 갖고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기존의 이들 변수간의 관계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킨 연구의의가 있다.

주제어: 어머니, 정서표현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참 고 문 헌

- 김아신. (2009). 상위기분과 문제해결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 **인간이해**, 30(1), 81-95.
- 김의향 (2010).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7(1), 127-138.
- 김현주, 김광용. (2007). 아동상담자의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0(1), 35-46.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박새밀.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욱, 김정훈. (1995).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위한 방안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3(4).
- 박주영 (1995). A·B 성격유형·자아정체감·스트레스 대처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홍미. (200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유아의 자아 존중 감의 차이.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미애. (2001). 부모의 정서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절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혜린, 이영.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 송하나, 최경숙. (2010). 기질적 정서표현성의 안정성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93-107.
- 안명은. (2007).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경화. (2000). 일반아동과 자폐아동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희. (2010).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현, 조유진.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표현 양가성 및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내담아동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5(3), 93-109.
- 윤경화. (1992). 유아의 자아개념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기혼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8.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화.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1), 117-140.
- 이지현. (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미옥. (2005).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자녀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주희, 최연실. (2006).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부모갈등,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영향. **아동학회지**, 27(4), 233-246.
- 정윤신. (1993).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행복·불행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2001).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 35(1). 191-204.
- 정현숙, 유계숙. (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민영.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윤희. (2004).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관련된 변인과 유아의 정서능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종귀. (2009).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8(4), 825-840.
- Amato, P. R. (1991).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recall of childhood family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21-34.
- Belsky, J., & Pensky, E. (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Hinde, R. A. & Stenven-Hinde, J.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pp. 93-217). England: Oxford.
- Blackburn, R., Renwick, J. D., Donnelly, J. P., & Logan, C. (2004). Big five or big two? Superpredicate factors in the NEO five factor inventory and the antisocial personality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957-970.
- Buck, R. (1989). Emotional communica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interactional view. In Hendrick, C. (Ed.). *Review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10, (pp. 144-163). Newbury Park, CA: Sage.
- Cole, P. M., Teti, L. O., & Zahn-Waxler, C. (2003). Mutual emotion regulation and the stability of conduct problems between pre school and early school ag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1-18.
- Couillard, G. C. (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 of orig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2(2), 187-213.
- Dunn, L., Beach, S. A., & Kntos, S. (1994). Quality of literacy environment in day care and children's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9(1), 24-34.
- Dunsmore, J. C., & Karn, M. A. (2001). Mothers' beliefs about feeling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117-138.
- Fowler, B. & Applegate, B. (1995). Do marital Conventionalization Scale Measure a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237-241.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s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103.
- Johnson, M. D., Cohan, C. L., Dvila, J., Lawrence, E., Rogge, R. D., Karney, B. R., Sullivan, K. T., & Bradbury, T. N. (2005). Problem-Solving Skills and affective Expressions as Predictor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1), 15-2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2-113.
- Lonigan C. J., Carey, M. P., & Finch, A. J. (1994).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gative affectivity and the utility of self-repor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00-1008.
- Pitcher, S., & Meikle, S. (1980). The topography of assertive behavior in positive and negative situations. *Behavior therapy*, 11, 532-547.
- Rini, C. M. (2001). Social support effectiveness, measurement, prediction, and relation to psychological health during pregnanc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Saarni, C.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ion in social transaction. In Saarni, C. & Harris, P.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pp. 181-20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batelli, R. (1984). The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A measure for assessing outcomes relative to expec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537-546.

Salovey, P., Brackett, M. A., & Mayer, J. D. (2004). *Emotional Intelligence: Key Readings on the Mayer and Salovey Model*. New York: National Professional Resources.

Stanton, A. L., Danoff-Burg, S., Cameron, C. L., &

Ellis, A. P. (1994). Coping through emotional approach: Problems of conceptualization and confou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350-362.

접 수 일 : 2010. 11. 05.

수정완료일 : 2011. 01. 04.

게재확정일 : 2011. 01. 25.